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설 민속명절 감사주일 /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오늘은 <설민속명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헌금 필경대에 '설 명절 예배순서지'를 비치했으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청지기 헌신의 주일 / 경기서지방회 청지기세미나
2025년 2월 2일(주일)은 <청지기 헌신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찬양예배는 경기서지방회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일시 : 2025년 2월 2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안양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

4.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025년 2월 2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첫날맞이 월삭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준비 : 임명순 사모, 정애자 권사
배종위원 : 한승훈 목사, 이광근 안수집사

5.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신청
2024년 연말정산서/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임목사 개인톡으로 신청서(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봉 한지석 이광근 정지혁 오동영 임명숙 임명자)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中), 강민지(중국, ~1.26), 이다님(병가), 박영대(병가)

7. 2025년 2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1.4 ~ 2.1)*
2/02(목)-한정일 성도(-1.5) 2/03(월)-정김혜숙 권사(-1.6) 2/06(목)-임명숙 집사
2/08(토)-전가윤 어린이 2/10(월)-공은주 어린이 2/21(금)-문수인 어린이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박태성 님

주일대표기도

1/26	박제연 집사
2/02	이광근 안수집사
2/09	임명자 집사
2/16	임명숙 집사
2/23	김혜숙 권사
3/02	정애자 권사
3/09	박제연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1/26	설명절감사예배
28~30	설 명절감사 가족예배
02/02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청지기헌신의 주일
	청지기세미나(안양중앙교회)
02/09	온성도 화목의 주일(척사대회)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02/11	제82년차 정기 지방회(세한교회)
02/16	장학주일(장학금 수여)
	교육부서 헌신주일 (부서별 특송)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하나인 사역소개(박제연)
16~28	전교인 축복 대심방
02/23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주일 차량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탑동(10:00) ►화서동(10:10)►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탑동(13:40) ►화서동(13:50)►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8권 4호 | 2025년 1월 26일
창립 2017.11.25 | 주현 후 셋째 주 / 명절감사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설 민속명절 감사주일) 인도:집례자

※ 묵 도 ····· 신명기 33:26~29 ····· 다 같 이

※ 찬 송 가 ····· 찬 15장 ····· 다 같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성시교독 ····· No.94 새해(2) ····· 다 같 이

찬 송 가 ····· 찬 304장 ····· 다 같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대표기도 ·····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광 고 ····· 인 도 자

※ 성경봉독 ····· 신명기 11:8~15 ····· 박제연 집사

말씀인도 ····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 담임목사

봉헌찬송 ····· 찬 430장 ·····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태민 학생)

※ 축 도 ·····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이가을 장서라 정지혁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 이가을 최은평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전도헌금 :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후원헌금 : 세한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 맡 은 이
성경봉독 여호수아 12:1~24 (구 338)
말씀제목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4:46~54 (신 149)
말씀제목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설명절예배순서지

오후 2:00 ····· 부모님 중
성경봉독 왕상 18:1~15 (구 546)
대표기도 ····· 자녀들 중
말씀제목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19:1~14 (구 815)
말씀제목 주님 앞에 열납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26일(일)	수 12:1~24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27일(월)	수 13:1~14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28일(화)	수 13:15~33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29일(수)	수 14:1~15	신실하신 하나님
30일(목)	수 15:1~19	축복을 성취하는 조건들
31일(금)	수15:20~63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2/1일(토)	수 16:1~10	생명보다 귀한 영영한 기업
2일(일)	수 17:1~18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오주교훈흠스쿨)

이재우·재희·재아

훈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베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컴퓨터 파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교단총회 향존부서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기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우고용마을

⑥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 53:2~3)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 )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 )를 많이 겪었으며 ( )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 )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⑦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 받는 종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셨나요?** (사 53:4~6)

그는 실로 ( )의 질고를 지고 ( )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 )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 )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 )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 )을 그에게 ( )시키셨도다

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나요?** (사 53:10~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 )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 )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 )하리로다

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사 54:1~3)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 )를 넓히며 네 처소의 ( )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 )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 )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 )이 되게 할 것임이라

⑩ **여호와께서 세우실 미래의 예루살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시나요?** (사 54:13~15)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 )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 )이 있을 것이며 너는 ( )로 설 것이며 ( )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 )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 )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 )하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해드립니다)

성경공부 : 2025-4주 / 이사야 49장 ~ 54장

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을 부르실 것이라 했는데,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나요?(사 49:5~7)**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　　)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　　)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　　)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　　)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　　)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　　)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② **이스라엘의 자손의 망국과 포로 생활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 50:1)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　　)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　　)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③ **이사야는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고난을 받지만 장차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했나요?** (사 50:10~11)

너희 중에 여호와를 (　　)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　　)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　　)하며 자기 하나님께 (　　)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　　)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④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찬 말씀에도 불고하고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위로하시나요?**(사 51: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　　) 같게, 그 광야를 (　　)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나요?**(사 52: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　　)이 팔렸으니 (　　) 속량되리라

신앙의 향기 - 조선 선교의 선각자들(3) - 매클레이 Robert Samuel Maclay(1824~1907)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는 대표적으로 3인을 들 수 있는데, 1832년의 귀츨라프 선교사, 1865년 토마스 선교사, 1884년 매클레이 선교사입니다. 이들의 일시적 방문은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귀츨라프 선교사는 <감자>를 남겼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으며, 매클레이 선교사는 <선교 관련 사업>에 대해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계통의 미국인 선교사 겸 교육자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콩코드에서 1824년 2월 7일 출생하였고, 1845년 7월 Dickinson College를 졸업했으며, 1847년 9월에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 1848년 4월에 중국 푸저우(福州)에 도착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는 중국에 온지 8년만인 1856년 8월에 처음으로 진신당(眞神堂)이란 교회를 설립했고, 10월에는 천안당(天安堂)이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 설립이 늦어진 것을 보면 교회 설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72년 11월까지 중국 선교부 감독으로 일했고, 1873년 6월부터 1887년 은퇴까지는 일본에서 일본 선교부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도쿄의 靑山學院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은퇴하여 미국에 귀국한 후에는 1901년 까지 캘리포니아 San Fernando에 있는 Maclay College of Theology(맥클레이 친형이 설립한 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07년 8월에 별세 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와 조선과의 관계는 1882년 연초반부터 당시 일본에서 사절단으로 일하던 김옥균과 사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 선교의 길을 열라는 지시를 받은 메클레이 선교사는 1884년에 서울에서 와, 김옥균을 통해 고종 임금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선교사업(병원, 대학)에 대한 고종의 허락을 받았고, 1885년 2월 23일 미국 감리회의 조선 선교부 감독으로 임명되었으며, 아펜젤러는 부감독, 스크랜턴 의사는 회계담당자로 임명되었지만, 임명통지서는 3월 31일에나 도착했습니다. 메클레이 선교사는 조선에 부임하지는 못했지만, 1887년 조선 선교부 감독으로 활동한 후, 선교사직을 은퇴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는 1885년 3월 5일에 조선 선교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① 1885년 말에 조선학생 4인의 동경 일영대학 유학을 위한 $200 예산 확보, ② 감리교 교리 문답 1호 발간을 매클레이 선교사에게 위임, ③ 이수정의 '참된 교리에 대한 쉬운 교훈'의 번역, ④ 소책자와 찬송가의 번역 및 출판을 위한 바용 $250을 학교 기금에서 확보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는 조선을 방문하여 고종 임금에게 선교 사업을 청원한 것은 오랫동안 조선의 선교를 꿈꾸고 있던 그에게 미국감리회 선교본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는 1848년부터 중국선교사로, 1873년부터는 일본 선교 교사로, 1884년에는 조선에 와서 의료 및 교육사업에 대한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참고 _____
신철호·김주창, 「한국 선교의 파이어니어」, 양화진, 2024, pp. 55~56.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310장 다 같 이
대표기도	맡 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 : 9 ~ 14 (신 142) 맡 은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헌금찬양	찬 314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사랑과 위로, 권면과 격려를 통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얻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고이 받고, 형제자매가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 천국 됨을 경험할 때,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5년 새해에도 가정천국을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에는 숭본식말(崇本息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숭상하면 말단은 자연히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인 도덕경이 말하는 '숭본식말'의 관점은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요, 둘째는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피조물인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요 1:4). 빛은 어둠을 비추고 몰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빛은 대상을 비추는 빛, 그 존재를 알게 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빛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하는 좋은 분이라고 소개합니다(요 3:16).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며,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죄악 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게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진 피조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요 14:6).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히 4:16). 이것이 예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비추는 진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25~26). 이것은 물리적인 생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요 17:3). <앎>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0). 이를 위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성령,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16). 이것이 성령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 19:23)고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4)고 축복합니다. 2025년 올 한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평안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❶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신앙과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❷ 가족이 돌아가면서 덕담, 칭찬, 장점, 기대하는 일 등을 나누기 바랍니다.
❸ 나누어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